

“전남쌀, 수도권 공략 힘드네”

올 여름 날씨 왜 이러나

곳곳 100mm 넘는 게릴라성 폭우...낙뢰 피해 우려도

판매 매니저 60명중 47명 그만둬
유통망 부족·저가쌀 인식 걸림돌

“한눈에 반한 쌀” 등 유명 브랜드 쌀을 제외한 전남 쌀에 대한 서울 소비자의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또 쌀이라는 게 누구나 먹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남 쌀로의 소비 성향을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남 쌀 판매 매니저’로 활동하다 최근 그만 둔 김모씨(42)의 말이다. 김씨는 “전남 쌀은 저가 쌀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전남도 차원의 홍보 마케팅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전남 쌀 판매 매니저는 전남도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전남 쌀 유통망 부족과 낮은 인지도, 저가 쌀이란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수도권에 전남 쌀을 판매할 1기 전남 쌀 판매 매니저 60명을 선발했다. 수도권 대형 급식처나 유통업체, 식당 등을 상대로 전남 쌀 판매를 맡는 매니저에게는 소형 트럭이 한대씩 제공되고, 쌀 판매량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다. 전남도의 쌀판매 매니저제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전남도가 처음 시행한 것이다.

7일 현재 활동중인 쌀 판매 매니저는 모두 35명. 당초 목표했던 60명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2명을 채용했으나, 절반 이상이 그만둔 것이다. 특히 1기 매니저로 선발된 60명 중 단 13명만이 활동중이다.

판매실적 역시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25억원어치(20kg들이 6만2천500포)로, 애초 7개월간 매출 목표치인 5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판매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전남도는 ▲식당과 유통업체 등 쌀을 구입·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기존의 거래처를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규 거래처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쌀 소비처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경기미 등에 비해 낮은 인지도, 저가 쌀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kg들이 1포 판매금액 3만9천900원 가운데 3천 원을 수당으로 받는 매니저들이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1천포 이상을 판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목표를 채우기가 어려워 이직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개월간 연속 1천 포 이상을 판매, 월 3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서동일(40) 매니저는 “상당수 매니저가 일정 수준의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을 하다 결국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늘 입추...벼 첫 수확

입추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첫 추수에 나선 허만재(56)씨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매펠마을 자신의 논에서 수확한 벼단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오전 매펠마을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농협 관계자, 마을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7 친환경 무농약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렸다.

/순천=니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지역 시간당 38mm

한반도 북서쪽의 찬 기단(氣團)과 남쪽의 따뜻한 공기층이 충돌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연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기단의 움직임이 워낙 변화무쌍해 예기치 못하는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비상에 대처하는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7면>

6일 오후를 기해 호우경보(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가 내려진 여수에는 6일 시간당 최고 3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5일 강원도 영월에서는 시간당 63mm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6일 오후 6시 현재

까지 314.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난 5일에는 폭우 속에 고양시 북한산 용혈봉 등에 비라미 떨어지면서 등산객 5명이 숨졌고, 진도에서는 간척지 방조제의 배수갑문이 비락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바닷물이 유입되기도 하는 등 낙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와 천둥·번개로 불안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기단과의 세력다툼 때문이다.

8월 들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난달 24일 구례와 순천 등 전남지역에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

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수증기 유입이 활발해지면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단과 만나면서 그 경계면에 비구름대가 형성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8월 하순까지 시간당 40mm 이상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 많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추(立秋)’인 8일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30~100mm의 비가 내리고, 중부지역에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고 20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女죄수-女인질 맞교환 용의”

탈레반, 한발 물러서...내일 지르가 회의 주목

<아프간-파키스탄 부족 지도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상회담에서 ‘인질사태에 양보없다’는 입장이 재확인되고 탈레반 역시 기존의 요구를 고수함에 따라 정부는 탈레반의 태도 변화를 경계하며 ‘직접 협상’을 위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른바 ‘인질-탈레반 죄수 교환석방’이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해진 만큼 탈레반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요구조전 변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 “더불어 다각적인 해결방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레반측이 변화된 요구조건을 제시할 조짐을 보일 경우 탈레

반과의 직접 대면협상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명망 있고 이슬람권에서 존중받는 비정부기구(NGO)의 중재는 물론 안전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탈레반측과 대면접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아프간-미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죄수 석방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머디는 이날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를 통해 발표한 지도자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탈레반 죄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요구는 받아

들여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질들이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면 아머디는 이날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협조해 수감된 여성 수감자를 풀어주면 같은 수의 한국인 여성 인질을 석방할 용의가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한인 인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9일 열리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부족지도자 회의인 지르가에서 탈레반 대응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CATS
뱀목 타겟 발매중!!
2007.8.7-18 / 매주 목요일
문의: (031)221-0340-1533-0763

유망학원 장학 57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주) 조이트레블
234-3222
329,000
399,000
439,000
329,000 299,000
599,000

장사(장가계) 편서기 9천
399,000
549,000
699,000

379,000
579,000
719,000
599,000

299,000
269,000
279,000
279,000
349,000
369,000
299,000
299,000
279,000
329,000
369,000
369,000
1,590,000
1,690,000